

지역 소식 통



김영식 고창부군수,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나서

김영식 고창부군수가 역동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26~28일 3일간 군정 주요 현안사업장 및 주요시설 현장방문에 나서고 있다.

김 부군수는 26일 방산산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조성사업, 꽃정원 단지 조성사업, 명사리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등 현장을 방문했으며, 27일과 28일에는 구시포항 수산물 위판장 설치사업, 고창중앙테마파크 조성사업 및 노을 생태갯벌플랫폼 조성사업, 구름골 산림휴양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포함한 11개소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고 있다.

김영식 부군수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상거래 질서 확립
위조 상품 합동단속 실시

부안군은 지난 26일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위조 상품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군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5명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가방집, 액세서리, 금은방 등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위조 상품 유통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관고할 계획이며 시정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 지도 단속을 통해 상인들의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앞으로도 위조 상품 금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나서

정읍시, 곤충산업 지원 본격화… 식품·사료 등 지속가능 생물자원으로 평가

정읍시가 곤충산업을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지난 19일 정읍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읍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정삼철 시의원이 대표 발의, 곤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곤충산업은 기존 축산업에 비해 온실가스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식

품·사료·애완·화장품·신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지속가능 생물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제3차 곤충산업육성 종합계획(2021년 3월)에 따르면 국내 곤충업 신고 농가·법인인 2019년 기준 2635개소로, 2012년부터 연평균 21.8% 성장했다. 판매액도 2015년 162억원에서 2019년 40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정읍시에는 35개 농가에서 사슴벌레, 장수풍뎡이, 흰점박이꽃무지, 갈색거저리(밀원), 동애등애 등을 사

육하고 있으며 이들은 체험·애완용, 사료용 등으로 농가·개인에게 공급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국내의 곤충 시장 경쟁력을 갖춘 농가를 육성하고 기술 교육과 유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화수 시장은 “곤충산업은 미래 먹거리, 반려동물 사료, 화장품, 의약, 화습재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유망 산업”이라며 “곤충농가의 역량 강화와 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자체혁신평가 우수 등 행안부 지자체 평가 싹쓸이

고창군, 2월 중 행안부 평가 모두 최상위권 · 지자체 혁신평가 · 데이터 기반행정 · 민원서비스 등

고창군이 ‘지자체 혁신평가’, 데이터 기반행정평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 행안부의 각종 평가를 휩쓸면서 민선8기 심덕섭 군수의 혁신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자체 혁신평가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2018년 평가 시작 이후 첫 우수기관 선정의 쾌거다.

고창군은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주민서비스 개선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 등 평가지표 전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3위를 차지했고, 전년도 39위에서 무려

36단계가 상승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앞서 전남(26일)에는 행안부 ‘데이터 기반행정평가’에서도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전북 14개 시·군 중 유일하다.

고창군은 공공데이터 개방 분석 결과로 정책에 반영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표준분석모델 정립 공모사업, 데이터 분석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는 등 데이터활용 역량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난 4일에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평가는 전년도(2023년) 평가 결과에서 2단계나 끌어올린 것으로 민원취약계층 및 민원담당자 보호,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도에서 만점을 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중앙부처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특교세 확보나 현안해결은 물론 지역의 자긍심 고취에도 큰 이점이 있다”며 “올해도 지역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국립수목원, 자생식물 보전 · 정원소재 활용 업무협약

위도상사화 등 부안 자생식물 활용 지역 특화 정원소재 적극 발굴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부안의 자생식물 보전 및 정원소재 활용 협력을 위해 27일 부안군청에서 국립수목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립수목원이 추진하는 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안 지역에서 자생하는 위도상사화, 변산비단꽃, 변산환유, 미산나무 등을 활용한 지역 특색화 사업 공동 추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위도상사화는 1998년 부안 위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뒤 부안을 대표하는 희귀·특산식물로 자리 잡았다.

이후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증식법을 개발했고 부안은 매년 늦여름 위도에



부안군은 부안의 자생식물 보전 및 정원소재 활용 협력을 위해 국립수목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 위도상사화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자생식물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사항은 식물 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목원·정원 조성에 필요한 기술 검토 및 자료, 정원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및 협력 등이다.

군과 국립수목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국가 연구기관이 협력해 지역 식물을 활용한 정원소재 개발 및 전시·홍보를 통한 지역 홍보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의 지역 대표 식물을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 브랜드화, 지방정원 활성화를 위해 지방과 중앙장부가 협력해 식물 자원화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인천공항, 고속버스로 한번에 간다

고창군, 금호고속 운행 확정… 3월 10일부터 하루 2차레

오는 3월 10일부터 고창군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고속버스가 운행된다.

27일 고창군 등에 따르면 금호고속이 3월 10일부터 고창군공용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버스 운행을 확정했다.

해당노선은 고창버스터미널에서 하루 2차레(자정 0시 10분, 오전 9시 50분)에 출발해 정읍과 김제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향한다.

인천공항에서 출발시간은 제2터미널(아침 7시 30분, 오후 5시), 제1터미널(아침 7시 55분, 오후 5시 25분)이다.

고창에서는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으로 곧장 가는 버스노선이 없었다. 해외를 나가려는 군민들은 무거운 짐을 끌고 인근 정읍이나 광주까지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취임직후 주민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수차례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고창-인천공항행 노선 신설을 건의해 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인천공항 노선버스 운행을 통해 군민들의 교통 편의는 물론 시간과 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필리핀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40명 선발

정읍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40명을 직접 선발했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지난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필리핀 마갈데시와 내역시를 방문해 현지 면접을 실시했다.

이번 면접은 시와 샘골농협이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본 인적사항, 가족관계, 건강상태, 농업 종사 이력, 기초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인력을 선발했다.

선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입국 전까지 기본 한국어 교육과 농작업, 한국 문화·식생활 요령, 무도탈 시 불이익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입국 후에는 근로 시 준수사항, 감염병 예방, 인권침해 예방 등 사전 교육을 거친 뒤, 외국인 등록 등 필수 절차를 마친 후 농가에 배치된다. 시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도입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지역농협이 외국인 근로자와 계약을 맺고, 특정 농가가 아닌 여러 농가에 일일 단위로 근로자를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농가별 인력 수요가 원활해지고 근로자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위한 가족사를 올해 준공하고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실적 ‘우수’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며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 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 우수 지자체는 최근 3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평균 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고용유지 2명의 추가 인력을 배정받는 인센티브를 획득했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앞장서고 있는 시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준공된 농업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활용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해 일일 단위 인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가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정읍 문화탐방 등 근로자 복지를 위한 맞춤형 정책도 선보인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정착을 돕고 농가와 근로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53개 농가에 50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하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올 해는 188개 농가에 800명을 배정해 더 많은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